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DA 2019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09

부평구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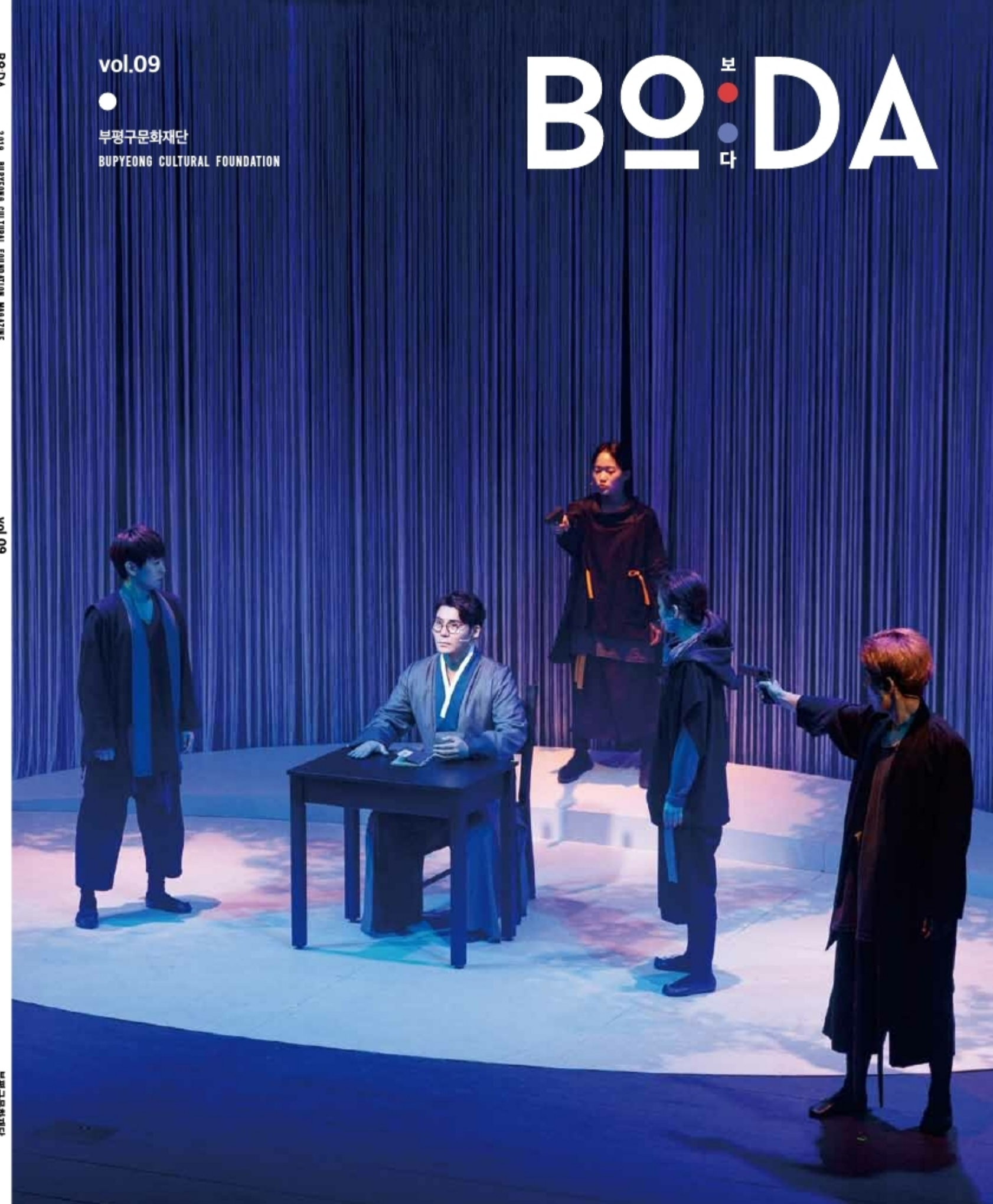
vol.09



부평구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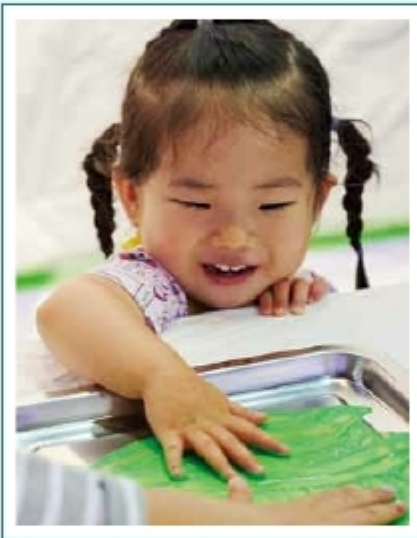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보다
BO DA



우리의 꿈은

우리가 직접 그려야지요



부평아트센터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색과 빛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저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미술체험 '피카소 색깔 놀이'가
6월부터 8월까지 갤러리꽃누리에서 열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활 액세서리를 이용한 색깔 놀이와
형형색색 빛과 함께하는 빛깔 놀이 그리고 한껏 쌓아둔
자신만의 짓궂음을 발산하는 종이블럭방까지,
아이들의 생각은 색과 빛과 움직임으로 더욱 커져갑니다.
부평의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스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발행인	이영훈
편집인	황유경
편집기획	최인호, 김세연, 현도연
취재·편집·디자인	Text & Image
발행일	2019년 8월 23일
발행처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21440
전화	032-500-2000
팩스	032-506-9021
홈페이지	www.bpcf.or.kr



'보다'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선

04 PEOPLE FROM ART 부키의 소소^{소소}한 극장 & 소소^{소소}한 인터뷰

08 MUSICITY 부평을 음악융합도시로 견인하는 쌍골이 D-Lab & 뮤직데이



생각

12 LOOK INSIDE 언제나 비탈진 경계에 서 있는 동네

16 LOOK AROUND 우리가 사랑한 홍콩, 예술로 깨어나다



인사이드 부평

22 VIEW FINDER 1 우리 아이 생각주머니 크기가 궁금하세요? '그림책 놀이터'에서 확 펼쳐보세요~

26 VIEW FINDER 2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창작뮤지컬 <구(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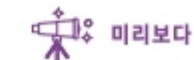
28 VIEW FINDER 3 오정혜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32 ZOOM IN 1 같이 하는, 가치 있는 생활 부평생활문화동호회의 꽃 포크댄스동호회

36 ZOOM IN 2 창단 20주년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40 ZOOM IN 3 도서관에서 만나는 300년 프랑스 문학과 음악, 음악이 있는 부개도서관

42 NEWS '책 읽는 부평' 올해 대표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 선정 외



미리보다

46 WHAT'S NEXT?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외

53 CALENDAR 2019 에스컴시티프로젝트 기획전 외

64 INFO



PEOPLE
FROM ART

부키의 소소笑小한 극장 & 소소小少한 인터뷰

‘부키’는 부평 키즈의 약자로 ‘부평의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지난 5월 5일 부키들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초록누리축제가 열리는 부평아트센터 곳곳에서 신나게 뛰어 놀았다. 그런데 올해는 지혜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8개의 공연을 동시에 펼쳤다. 아이들은 소소한 극장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가득한 얼굴로 공연 장소를 채웠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펼친 8개의 공연은 11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각각 두 번 펼쳐졌는데 이야기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직접 연기하기까지 소소한 극장 주인공들의 열정 가득, 에너지 충만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다.

“부평다운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추구”

“오랜 시간 지역의 축제를 관찰해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축제들이 다 특색도 없고 흐름이 없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차별화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부평이니까 부평에 맞는 예술가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지요. 앞으로 지역마다 지역 예술가들이 자기 지역을 위한 축제를 만드는 문화 운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유홍영 감독은 이번 소소한 극장을 위해 부평구문화재단과 작업하면서 3개월 전부터 인천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개인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를 공부했거나 구조물과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부키프로 자리하는 데에 기여했다. “부키는 부평 아이들을 위해 지은 이름인데 부평구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아요. 또 부평 주민들도 행사 시작 전부터 텐트를 치고 함께하는 것을 보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올해를 계기로 부평인천 예술가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남과 공연을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면 아마 내년엔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홍영 감독은 극단 사다리 창단 멤버이자 대표이다. 사다리 멤버들은 각기 지역에 가서 자기 극단을 만들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도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현장 작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를 발견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 꿈이다.



이정준



<광대 드림>

“어린이날, 애써 부모들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광대 드림>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광대를 깨워 마음과 소리, 슬랩스틱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광대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에겐 솜사탕과 팝콘도 만들어주었다.

“어린이날이지만 자녀를 데리고 온 어른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주다 보니 어른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만족합니다.”

어린이날에 어른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던 조금은 엉뚱했던 기획이었다. 어른이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겁기 때문이란다.

1인 예술가 이경준은 극단생활을 하면서 일인극에도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

김윤희



<깜빡깜빡 도깨비>

“소리꾼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신나게 즐겨보아요~”

1인 예술가 김윤희는 전래동화 「정신없는 도깨비」를 판소리로 풀어냈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버릇 때문에 친구가 없던 도깨비 깜빡이에게 드디어 씩씩한 힘찬이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성지게 노래했다. “아이들도 발산하는 게 있어서 갖고 있던 정서를 조금만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소리를 따라 하더라고요.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따라부르고 잘하네요. 저는 원래 옛날이야기 들려주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소소한 극장은 지역의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공연을 올리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늘어서도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해 공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김윤희 예술가에게서 우리만의 끼와 흥을 느낄 수 있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나만의 행복한 선물가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버리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갖고 싶은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선물가게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원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듯 1인 예술가 김은미는 선물가게를 열었다. 작가는 텐트를 설치하고 한 가족씩만 들어가서 속삭이듯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했다. 선물이라니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어떤 내용일지 예상할 수 없는 신비감을 조성했던 공연이었고, 기다리는 줄이 가장 길었던 공연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은 다 버리세요. 갖고 싶은 마음만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주문을 외워줄게요.”

선물가게 주인장인 김은미 예술가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원해주었고 관객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텐트 밖으로 나왔다.



<선물가게 작금 흥행률>

“두려운 씨앗이 성장해가는 행복함을 느껴보세요”

땅 위의 세상이 두려운 작은 씨앗이 새싹으로, 꽃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로 1인 예술가 오연주는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점점 성장해 가는 행복함, 누군가의 양식이 되는 기쁨과 태어나고 자라서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 그리고 분리된 것은 합일의 존재로서의 자신, 공연 속에서 씨앗의 탄생과 성장, 소멸의 과정을 따라가며 이러한 삶의 이치를 예술적으로 경험하고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라고 작품을 설명한다.

공연 컨셉은 ‘한 가족 한 이불, 이불 극장’이었고 가족들끼리 살을 맞대고 호흡을 나누는 것으로 따뜻한 감각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족끼리 가까이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

“너무 떨어져서 두 번째 공연이 되어서야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관객들의 존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저와 관객들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 기뻐요.” 오연주 예술가는 교육연극을 하다가 작년부터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워크숍에 참가했다.

이번 ‘소소한 극장’을 통해 예술 창작에 관해 막혀있던 중요한 지점이 해소되었다는 그녀는 독립공연예술가로서의 길을 활발히 모색 중이다.

서인석



<어기어차 어여차>

오연주

<동물이야! 씨앗극장>



“우리 고유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아이들을 위한 종합예술로 재탄생”

그림자와 인형을 통해 심장생도를 완성해나가는 대자연 서사시 <어기어차 어여차>는 동물과 생명, 환경과 생태, 사람과 자연 등을 할아버지, 손자 방탄이가 전하는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1인 예술가 서인석은 무대 디자이너로 오래 활동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그림 하나하나 다 직접 그리고 오려서 준비했는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보면서 잡은 컨셉이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재미난 공간과 이야기를 꿈꾸고 있어요. 세대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함께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에서만 노는데 제가 조개껍질 갖다놓고 바다와 사람의 마음을 윤선도의 시를 통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 서로 느끼며 살아야만 더 감성적이고 표현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는 워크숍을 통해 노래, 작곡, 스토리 등을 혼자 작업하는 것을 배웠다. 거기에 맞춰 조명도 생각하고 의상도 마련했고 스토리에 맞는 음향도 준비했다. “그림자극을 더 발전 시켜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극장이 결코 다른나라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종합예술로 구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단편적인 기억들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소통”

아기자기한 한지 인형들이 테이블 위에서 연기를 선보이는 테이블 인형극으로 가난하지만,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딸기 아버지의 책임감과 삶의 무게를 유쾌하고 애잔하게 풀어냈다. 공연은 인형극, 그림자 연극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아무래도 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 기억 속 아버지의 단편적인 기억을 담아 극을 만들게 되었어요.”

1인 예술가 김미섭은 극의 내용이 50년 전 이야기라 공연을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계속 어린이 관객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과 마지막 장면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김미섭 예술가는 인형을 만들고, 이야기를 쓰고, 연출, 음악 등도 직접 작업하는 독립공연예술가이다.

김미섭

<딸기아버지>



“아름다움은 좋은 마음,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

쓰레기섬에 사는 작은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상자 할배의 도움으로 ‘아름다움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름다움’이 궁금해진 쓰레기 섬에 사는 우유갑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을 얘기하는 이 공연의 1인 예술가 이상명은 “현재 이 시대는 미에 대한 기준을 외적인 부분으로만 단정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좋은 마음이고,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 이상명 예술가는 연극배우로 활동 중이며 일인극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연을 올리기 위해 미리 진행되었던 워크숍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예술에 대한 생각과 실행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좋은 작품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인극을 시도해보고 싶고 다양한 연극 작업을 통한 연기 활동도 열심히 할 예정이라는 이상명 예술가의 눈이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이상명

<아름다움 여행>



김수민

<아름다운 블루홀>



“아름다운 블루홀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

다이버들의 로망 블루홀을 파란 쓰레기통 속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자들은 물안경과 헤드폰을 끼고 작은 인형이 되어 쓰레기통 속 아름다운 블루홀을 탐험한다. 알록달록 산호가 가득한 바닷 속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코에 빨대가 박혀 아파하는 거북이를 발견한다. 그리고 관람객에게 이 바다를 지켜낼 수 있을 방법을 묻는다. “오랜 시간 줄 서서 기다려준 관객들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며, 관객을 만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소한 극장’은 작지만 보다 가까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관객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1인 예술가 김수민은 인형이 주는 판타지에 매력을 느껴 ‘꿈꾸는 유랑’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공연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부평을 음악융합도시로 견인하는 쌍둥이 D-Lab & 뮤직데이

부평은 1950~60년대에 미군 부대 애스컴(ASCOM) 주변을 중심으로 라이브클럽이 형성되고 대중음악 성장의 주요 거점이 된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적·인적·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며 부평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이 사업은 2019년에는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디지털 음악 교육 및 연습이 가능한 'D-Lab'과 시민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 음악 생태 환경을 만드는 '음악동네' 사업인 부평뮤직데이·뮤직워크로 집중하고 있다.



드럼 머신 사용 방법을 물어보는 수강생에게
응답 중인 강사, DJ Bluechip



청소년의 음악적 재능을 계발하는

(재)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지역 내 청소년·청년들이 디지털 음악 분야(DJ, EDM, 힙합 등)를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D-Lab(가칭, 구 BP 음악산업 센터)을 마련하여 2019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D-Lab은 크게 4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여러 사람과 자유롭게 음악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1인 작업공간 및 뮤직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①코워킹 스페이스, 개인 및 팀 구성의 음악 작업이 가능한 ②소규모 연습실, 디지털 음악 분야의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디지털 음악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DJ 장비 등 디지털 음악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③교육실, 믹싱과 마스터링, 녹음, 합주 연습이 가능한 ④사운드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D-Lab에서는 디지털 음악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 내 청소년·청년들이 참여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지털 음악 장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제잉 및 디지털 음악 제작 방법, 전 세계 디지털음악 씬 사례 탐구, LP 음악 감상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청소년 대상의 DJ

직업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5일에는 성인 대상 비트 메이킹 워크숍이 열렸는데, 디지털 음악 장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음악 향유 계층 발굴과 부평(인천) 지역 내 전문 음악인 및 음악 동아리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부평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DJ Bluechip 김태연 씨를 강사로 하여 아날로그 드럼머신을 활용한 비트 메이킹에 대한 소개와 전자음악 및 비트 메이킹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드럼머신을 사용하여 비트를 만드는 법을 안내했고 각자 작업을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대상은 대학생 힙합동아리, 음악가, 회사원, 중학교 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모두 디지털 음악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추후 참여 대상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디지털 음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지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전자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D-Lab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토대로 조성되는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밖에도 앞으로 디지털 음악 작업 및 연습 공간이 필요한 청소년·청년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하도록 홈페이지 대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음악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가 및 관심 분야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추후 D-Lab의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은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를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뮤직랩(D-Lab)

MINI INTERVIEW

박상규 — 인하대 힙합동아리 개로 회장
얼마 전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비트 메이킹 레슨을 들었는데 시설이 깔끔하고 장비가 잘 세팅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뮤직큐브와 코워킹 스페이스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힙합동아리의 많은 인원이 녹음할 공간과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부평 D-Lab이 앞으로 우리의 활동에 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문화 활동 육성과 지원에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있는 분들과 계속 소통하며 발전하고 싶습니다. 전자음악으로 만들어지는 동아리는 같이 모여서 곡을 완성하고 그 곡들을 실제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공연에 사용한 곡들을 음원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색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김태연 — Bluechip, DJ 및 Producer
내가 사는 부평에 디지털 음악을 접하고 체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D-Lab 공간을 처음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회의, 기획, 모임, 연습까지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이번 디지털 음악 플랫폼 워크숍에 강사로 참석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의 참여와 높은 관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소통하고 가르칠 기회가 되어 좋았는데 향후 기본적인 워크숍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고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자음악으로 말하면 누구나 시작은 어렵게만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창의적인 구성으로 즐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음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넓은 내용으로 가득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위치한 분수무대에서 '국악그림 예술가'의 합주공연이 열렸다



지난 5월 17일, 부평 지하상가 중앙홀에서 열린 <부평 뮤직데이>



<부평 뮤직위크>를 통해 문화의거리를 찾아준 특벤드 '에고평선여러'



부평, 평화의 노래가 흐른다	2019.06.13.(목)	2019.06.15.(토)	2019.06.14.(금)	2019.06.14.(금)	2019.06.14.(금)	2019.06.15.(토)
	18:00~21:00	13:00~18:45	18:00~21:00	19:00~20:30	19:00~21:30	21:00~23:00
	부평문화의거리 야외무대 및 분수대	부평공원 분수대 옆 무대 및 인근카페 굴포먹거리타운 음악콘서트	굴포먹거리타운 내 놀이터 및 인근카페 부평, 음악이 흐르는 거리	부평지하상가 중앙홀 뮤직 오아시스	부평문화의거리 at 창고제즈립	부평문화의거리 at 솔로스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돋보이는

2019년에도 어김없이 부평의 음악동네 사업은 <2019 부평뮤직데이·뮤직위크>의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9 부평뮤직데이·뮤직위크>는 2016년 '뮤직타운-음악동네 만들기'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 진행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음악동네' 사업이다. 시민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가는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음악동네 사업의 핵심은 각 장소(굴포먹거리타운, 부평3동 및 부평공원 일대, 부평지하상가 및 문화의 거리 일대)의 주민, 문화예술인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문화적 시민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다. 이를 문화적 경관으로 일상화하여 음악 친화적인 음악동네를 부평의 다양한 장소에 형성하고자 한다. 2019년에는 뮤직데이를 정례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2018년 부평 뮤직데이·뮤직위크를 통해 발굴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 참가 공모전 개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주민 협력 등 그들이 직접 사업을 만들어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부평 음악동네 사업의 주요 거점에서 부평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음악동네 사업 대상지는 부평의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1950~60년대 미군 부대 애스컴(ASCOM) 주변으로 라이브클럽이 성행했던 위치의 부평3동 일대, 아시아에서 단일 건물 최다 지하상가 점포 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부평지하상가, 최근 독특한 카페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와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굴포먹거리타운 등, 소비 중심의 패러다임을 문화와 음악으로 재편하면서 문화도시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로 브랜딩하

고 있다.

부평 뮤직데이는 5월 17일 금요일 부평지하상가를 시작으로, 굴포먹거리타운, 부평3동 및 부평공원 일대, 부평문화의 거리 등에서 "부평,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주제로 10월까지 매월 진행한다. 5월 17일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은 야외 공연과 실내 공연(카페, 지하상가 중앙홀, 재즈 펍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인천 및 부평의 뮤지션과 동호회, 문화예술단체,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어쿠스틱, 재즈, 힙합, 클래식 등 음악 장르의 제한도 없는 무경계 음악축제로 진

행되었다.

한편 6월 13~15일에는 부평구 일대에서 부평뮤직위크가 개최되었다. 13일(목) 부평 문화의거리, 15일(토) 부평3동 및 부평공원 일대에서 "부평, 평화의 노래가 흐른다"를 주제로 공연을 진행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야외무대와 거리에서 음악공연이 진행되고 부평공원 내 곳곳에선 야외공연 및 짝꿍 공연과 인근 카페에서의 실내 공연이 펼쳐졌다. 14일(금) 굴포먹거리타운은 특별히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굴포 문화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굴포,

부평뮤직데이·뮤직위크

맛있는 음악축제"를 주제로 먹거리타운 내 쉼터놀이공원과 아쿠아 카페에서 공연이 열리며, 굴포버룩시장 및 LP 페어, 문화예술 무료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공연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공모를 통하여 누구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하였고 지역의 동아리, 뮤지션 등 다양한 인재가 참여하였다. 기획과 제작과정 또한 인천·부평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기획자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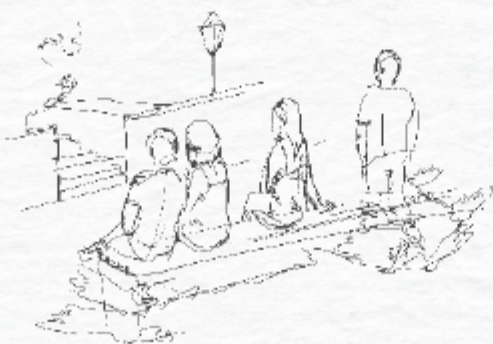
LOOK
INSIDE

십정동 이야기 언제나 비탈진 경제에 서 있는 동네

글·사진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



十井洞



Story #01 — 십정동이 만든 독창적 가옥

현재의 십정동은 주안 생활권의 끝이자 부평지역이 시작되는 '경계'에 있다. 지난 세월 오랫동안 이곳은 '한데'였다. 인천의 끝 땅으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북망산에 6·25 전쟁 후 피란민이 들어와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쳤다. 이후 도심에서 쫓겨 온 철거민들이 언덕 기슭에 판잣집과 흙벽돌집을 짓고 술단지를 걸었다. 인근의 염전이 거대한 공단으로 조성되면서 전국 팔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산꼭대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렇게 인천의 대표적인 산동네이자 달동네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동네 이름을 '열우물 마을'이라고 달달하게 불러 부르고 있지만, 그곳의 삶은 산비탈 길만큼이나 비탈졌다. 산꼭대기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집들이 들어섰다. 다닥다닥

앞집의 어깨를 짚고 다른 집이 무동타듯 올라섰다. 이웃과 내 집을 나눌 담은 없었다. 담을 칠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식구가 늘어나도 넓힐 한 평이 없어 옥상에 쪽방을 올렸다. 사다리를 만들어 지붕 한 귀퉁이에 장독대와 텃밭을 만들었다. 십정동에는 건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 가옥이 즐비했다. 사람도 마을도 꼬부랑이 되었다. 이곳에는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긴 계단이 많았다. 귀퉁이 깨진 시멘트 계단을 대어섯 칸만 오르면 집 한 채 키를 넘어섰다. 그렇게 맨 아래 길에서 꼭대기까지 가파르게 수직으로 오르면 열 채 집 정도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Story #02 ————— ‘침 좀 빨았던’ 아이들



가난은 아이들도 비껴가지 않았다. 이곳에 해괴망측한 ‘실화’ 하나가 전해져 온다. 1988년, 89년에 걸쳐 부평구 십정동에선 ‘침 빨기 알바’가 성행했다. 어린이들이 침을 빨아 모아 주고 푼돈을 받았다. 침을 수집하는 대형업소는 학교 앞 문방구나 동네 오락실이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침 모을 통과 껌 한 통을 나눠줬다. 침 값은 100ㄸ당 250원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한나절 내내 껌을 씹으며 침을 빨아내 콜라병을 채워 750원 정도 받았다. 수업 시간에도 몰래 침을 만들었다. 줄지에 십정동 아이들은 ‘침 좀 빨고, 침 좀 빨는’ 아이들이 되었다. 침은 국내 모 유명 제약회사가 백내장 치료나 노화 방지 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모은 것이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아닌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대낮에 인천 한구석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때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십정동은 이른바 ‘요시찰(要觀察)’ 동네였다.

밤낮으로 사복 경찰들이 ‘온밀하게’ 골목 어귀를 서성거렸다. 백기완 선생이 교장이었던 ‘노동자대학’이 개설했고 빈민운동 단체들이 들어와 ‘햇님공부방’ 등을 운영했다. 어느 날 갑자기 닭장차가 출동해 닭 대신에 사람들을 싣고 가곤 했다. 1970년을 전후해 경인 철로를 따라 주안에서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고개에 구름이 하얗게 끼면 비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해서 ‘백운(白雲)’이란 이름이 생겼다. 그래서 동네 이름은 ‘백운주택’이 되었고 이곳에 생긴 전철역은 백운역이 되었다. 그 주택단지와 기차 정거장은 십정동을 ‘한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Story #03 ————— 냉대 이겨내며 담치던 사람들

산 반대편 쪽은 그보다 앞서 ‘천형(天刑)’이라 불리는 한센병을 앓던 사람들이 세상의 천대 속에 모진 삶을 이어갔다. ‘문둥병 시인’이라고 불리는 한하운은 1949년 12월 30일 밤, 한센병 환자 70여 명을 이끌고 부평공동묘지(인천가족공원) 골짜기로 들어왔다. 고개 너머에 묻힌 망자(亡者)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였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온갖 설움과 냉대를 이겨내며 꾸준히 치료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그들은

‘사람 사는 곳’ 십정동과 청천동으로 집단 이주했다. 그들의 첫 정착지였던 공동묘지 나환자촌은 후에 중소 영세공장 단지로 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하운은 한센병 환자의 자식들을 위해 1952년 산 아래 경인가도변에 보육원을 창설했다. 아이가 보고 싶은 부모와 부모 품이 그리운 아이들이 해가 지면 산을 돌아 넘어와 보육원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물레 만났다. 그들은 사회의 냉대 속에서도 부지런히 닭을 치고 돼지를 기르며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 한때 인천 학생들 도시락 계란 반찬의 대부분은 그들 손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철길 옆 시멘트 블록으로 쌓은 양계장들이 줄지어 있던 자리엔 영세 공장들이 들어왔고 일부 담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Story #04 ————— 아픔과 설움을 땅속에 묻다



10여 년 전부터 십정동 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모조리 헐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면 새는 대로 비면 비는 대로 그대로 놔뒀다. 동네가 급속히 늙어갔다. 사람들은 열우물에서 퍼 올렸던 희망의 두레박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떠났다. 시간의 커가 총총이 쌓인 그 동네는 빈 동지가 되었다.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삽을 떴다. 2021년 완공돼 5,678가구, 1만4,000여 명이 입주한다. 이제 그곳은 그 아픔과 설움을 모두 땅속에 묻고 새로운 열우물 마을로 탈바꿈 한다.



우리가 사랑한 홍콩, 예술로 깨어나다



글·사진 박만진(에디터, 아트뉴스채널 '미술관 가는 남자' 운영)

아시아 영화에서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뿔어져 나오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한약재 같은 향신료 향이 음식에서 흘러나와 코끝을 자극한다. 비릿한 바다 향을 머금은 짠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 홍콩은 90년대 홍콩 누아르 영화 속 피땀, 눈물에 젖은 채 끈적하게 사랑과 우정을 나누던 홍콩 무비스타들을 떠올리게 부족함이 없다. 한때 아시아 영화의 중심지로 최고 전성기를 누린 홍콩이 국제적 예술의 무대로 돌아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아트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이 가져온 변화다.

동서양을 아우른 혼종의 문화를 배경으로

급성장한 홍콩 미술시장

지난 2011년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로 불리는 아트바젤이 홍콩국제아트페어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아트바젤 홍콩이 올해로 7살이 됐다. 영국의 식민지(1898~1997)를 거치며 동서양을 아우른 혼종의 문화를 구축한 국제무역 도시 홍콩은 해외 유수의 화랑과 유명 미술품 경매사가 발 빠르게 상륙하며 국제 미술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아트바젤과 UBS가 공동 발간한 2018년 기준 '더 아트 마켓 리포트 2019'에 따르면 글로벌 미술시장의 점유율은 미국 44%, 영국 21%, 중국 19% 순)

서구인에게 친숙한 도시지형과 영어권 문화

그리고 미술품 면세

오랜 식민의 기억이 고스란히 쌓인 홍콩의 서구식 건물과 도시 지형 그리고 영어가 통용되는 영국식 문화는 역설적이게도 가고시안, 데이비드 조 워너, 페로탱, 페이스, 하우저&워스 등 서구권 화랑과 소더비, 크리스티 등 국제 경매사가 홍콩을 찾는 배경이 됐다. 여기에 미술품 면세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대개의 국가와 도시들이 미술관 등 공공미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술시장이 형성된 것과 달리, 홍콩에 미술시장이 먼저 열린 이유이기도 하다.



▶ 빨간 명품백을 당당히 어깨에 걸친 중국 출신의 톱 모델 '리우원'이 영화처럼 등장한 이곳은 홍콩 최대의 관광명소이자 금융가인 센트럴이다. 서구적 도시 풍경과 동양인의 삶이 공존하는 홍콩만의 고유한 매력에 광고 속 여성의 모습에 그대로 묻어난다.

▶ '아트바젤 홍콩' 광고로 뒤덮인 홍콩의 명물인 트램,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며 홍콩인의 삶을 실어 나르는 이 2층 노면전차는 교통수단이면서 도시의 움직이는 대형 광고판이기도 하다.



지난해 아트바젤 홍콩 전시장 입구 앞에 차려진 홍콩 M+뮤지엄 홍보 부스, 스위스 출신의 슈퍼 헤르테인 '올리 지그'가 40여 년간 수집한 방대한 중국 현대미술품이 전시의 중심이다. 2020년 개관을 앞둔 미술관은 현재 '정도현'씨가 부관장을 맡고 있다.



홍콩의 첫 현대미술관인 'M+뮤지엄'

2020년 개관 예정

지난 1997년 7월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50년간 정치와 경제에 관한 고도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행정구역이다. 2014년 우산혁명에 이어 최근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까지 체제 안정에 관한 현안이 있으나, 3조 원의 거액을 들여 서구 문 화특구에 M+뮤지엄 등 문화예술기관을 건설하고, 오는 11월에는 2015년 개보수에 들어간 홍콩예술박물관이 재개관 하는 등 정부 차원의 투자와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우리 정부는 이런 홍콩의 문화 예술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홍콩 PMQ 2층에 한국문화원을 새로 개원하기도 했다.

금속풍선을 띄운 아트바젤 홍콩, 35개국 242개 갤러리 참여

올해 아트바젤 홍콩의 최대 화제작은 이불 작가의 금속풍선이었다. 올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며 잃어버린 방향성과 불확실성을 찾는 이슈에 집중한 페어의 대형 기획전은 힌덴브루크호의 대참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가의 작품



이불 작가의 '취약해질 용의-금속풍선'과 방긋 웃는 꽃 그림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타카시의 '카이카이 키키, 황금조각상', 데이비드 호크니의 8개의 대형 패널을 연결한 포토콜라주 작품 '전사회의 그림들' 등 아트바젤 홍콩의 화제작들



을 통해 미래의 창을 열었다. 페어에서는 이외 무라카미 타카시의 대형 황금 조각상과 서울시립미술관 회고전에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줬던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포토콜라주 작품이 등장해 사랑받았다. 지난 3월 27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닷새간 개최된 페어는 전년보다 8천 명이 늘어난 8만8천 명이 찾았다. 페어의 지난해 매출은 1조 원대, 참고로 지난해 한국 키아프(KIAF)의 방문객은 6만3천 명, 매출은 280억 원이었다.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홍콩, 부러움을 사다

홍콩 도심의 마천루 사이사이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위로 예술이 피어났다. 지도를 따라가다 잘못 들어선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빌딩의 보행로에서도 아트바젤 홍콩이 불러 모은 예술적 풍경은 오직 그곳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아트센터럴 등 위성 페어는 물론, 타이쿤과 왕척항 등 지역사회로 퍼져 나가며 홍콩을 예술로 물들였다. 홍콩인 삶을 파고든 예술이 부러운 순간이었다. 천년 고목이 거대한 뿌리를 드러낸 역사문화유적의 도시 홍콩은 도시의 오랜 숨결을 예술로 되살리며 아트러버를 유혹했다. 홍콩영화의 아련한 추억을 끄집어내고 예술로 새로운 얘기를 건네는 홍콩, 우리가 꿈꾸는 도시 브랜드의 미래가 아닐까.



센트럴의 글로벌 화랑 빌딩인 H퀀스("ART" 전경관이 붙은 건물), 거미 작가로 유명한 루이스 부르주아의 회고전이 열린 하우스&웬스, 초현실주의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세이렌의 노래'(좌측)를 선보인 서울옥션 SA+, 작품은 3월 29일 경매에서 72억 원대(5천만 홍콩달러)에 낙찰됐다.

필자 박민진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데일리 아트뉴스 큐레이션 매체인 아트뉴스채널 <미술관가는남자>를 운영 중이다. 한국미술계의 1인 미디어로 활동하며, 기성 매체의 관심에서 벗어난 작가와 작품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어깨가 들썩이며 감탄사가 연발한다. 우리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역사를 재해석한 감동적인 공연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는 넉넉한 품이 되어주고 시끌벅적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되어준다.

생활 속 예술을 자유롭게 만나고 피부로 체감하는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부평아트센터의 역할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다.

VIEWFINDER

- 우리 아이 생각주머니 크기가 궁금하세요?
그림책 놀이터에서 확 펼쳐보세요~
-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창작 뮤지컬 <구(九)> 청년 백범 김구의 고백
-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ZOOM IN

- 같이 있는 가치 있는 생활
부평생활문화동호회의 꽃 포크댄스동호회
- 정기연주회를 빛낸
부평구의 어머니 아내 시민들
부평구립여성합창단 20회
- 도서관에서 만나는
300년 프랑스 문학과 음악
음악이 있는 부개도서관

NEWS

- ‘책 읽는 부평’ 올해 대표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 선정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성낙경 2대 후원회장 취임
- 부평구문화재단·부평지하상가발전협의회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금상 수상

VIEW
FINDER
1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은 열심히 많이 읽어야 하는 매체이다. 그러나 이 그림책을 놀이터 삼아 보고, 읽고, 느끼는 감정을 여러 동작으로, 대화로, 표정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림책 놀이터>에서는 읽는 교육에서 통합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노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주머니가 커질 수 있도록 한다. 정말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신나는 놀이터가 될 수 있을까? 부평문화사랑방의 <그림책 놀이터>에서 확인해보자.



우리 아이 생각주머니 크기가 궁금하세요?

그림책 놀이터에서 확 펼쳐보세요~

부평문화사랑방은 과정 중심의 체험·놀이형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며 다양한 융합예술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진행된 <그림책 놀이터>는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예술교육 교수법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20일 수업은 '함께 그리는 그림, 작품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는데 넓은 공연장 바닥에 아티스트 웨이를 만들어놓고 아이들에게 캔버스 놀이터를 선사했다. 아이들은 무대 위에 놓여져 있는 그림책을 함께 보기도 하고, 손을 물감에 찍어 그림을 그리며 마음껏 뛰어놀았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전문 강사님과 함께하는 독서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수업에 참여한 만 5~6세의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선정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선생님은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오늘 수업은 평소보다 좀 더 자유롭게 했어요 바닥에 도화지로 아티스트 웨이를 만들어 놔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 아티스트 웨이라는 게 자유로운 감성을 끌어올리는 매력이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로 모여 앉아 있는 것보다 흩어져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그리게 해 보았죠.”
 이날 그림책은 아티스트 웨이의 중간중간에 자리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 살짝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길을 함께 꾸며주는 도구가 되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가끔 교사가 그 작업에 끼어들어 생활 속 이야기도 나누고 그림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덧붙인 이야기를 이어가며 아이들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아이들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마카펜, 매직, 크레파스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연신 그리면서 조잘거리고 감탄하고 스스럼없이 옆의 친구와 함께 그림을 채워나갔다. 피아노를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철길로 바꿔놓는 아이, 두꺼운 마카펜으로 아티스트 웨이를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는 아이, 소극적이지만 한 자리에서 작품의 디테일을 채우는 아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발랄한 웃음소리만큼이나 다채로웠다.
 부평문화사랑방 교육담당자 마수영은 “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따뜻한 문화공간 ‘사랑방’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민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들에게 그날 수업의 개념과 방식, 향후 집에서의 지도방법 등을 브리핑한다.



<그림책 놀이터>는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예술교육 교수법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MINI INTERVIEW



하승이와 엄마

네 번째 방문이고요, 아이가 집에 가면 항상 그림책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거려요. 책과 더 친하게 지내면 좋은 게 엄마 희망 사항인데 이곳에서는 책도 접하고 놀이 수업도 하는 거라 너무 만족해요



김수민 선생님

이번 학기에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놀이로 끌어내 보고 있어요. 아이들 집중도는 매번 좋아요. 오늘은 안 써본 재료들을 만져보는 것, 그리기와 콜라주를 접목해 아티스트 웨이에서 돌아다니며 자기표현을 해보는 거였어요.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특징을 체크하며 일대일로 상담을 해서 아이들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며 수업에 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일상에서도 자신의 이야기와 상상했던 것들을 계속 표현하며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선생의 역할이지요.

VIEW
FINDER
2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는 해로 영화와 공연, 토크쇼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부평아트센터에서도 지난 5월 16, 17일 양일간 백범 김구의 역사적 이야기를 다룬 2019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창작 뮤지컬 <구(九)>가 열렸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창작 뮤지컬 <구(九)> 청년 백범 김구의 고백



창작 뮤지컬 <구(九)>는 민족의 지도자 또는 영웅으로만 다뤄졌던 김구의 과거를 돌아보며 청년 김창수(김구)가 조국을 위해 이루고자 했던 과정들을 재조명하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특별히 이번 작품에서는 기존 공연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왔던 위인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암살당한 김구는 과거의 삶으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고 청년 시절 자신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다시 마주하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스스로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결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치하포 사건’을 일으킨 1896년부터 경교장에서 암살당하던 1949년에 이르기까지 김창수가 독립의 영웅이자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으로 변화하여 가는 과정을 춤과 노래로 촘촘히 풀어냈다.

창작 뮤지컬 <구(九)>는 기존 작품들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왔던 김구의 위인적 면모나 사건 중심 대신 역사적인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고뇌하며 갈등하는 청년 김창수의 인간적 모습을 강조한다. 백범 김구가 언제나 나라를 위한 투쟁에 용기 만만하고 굳은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도 인간이고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겠다는 설정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 민초들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연극과 영화의 주인공인 영웅보다는 조금은 수동적이고 평범할 수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을 그린 뮤지컬이기에 스펙타클한 재미 요소는 없었지만, 내면적 고뇌를 조명해보고자 한 시도는 공연의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을 제고한 부분에서 가치 있게 느껴졌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김구 선생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대답해야지 않을까.

MINI INTERVIEW



김경오, 최지혜

— 부평남초등학교 6학년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노래와 연기로 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상상을 뮤지컬로 풀어내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노래에 담긴 내용이 너무 좋았고 백범 선생님의 소원과 뜻을 알 수 있어서 감동이었어요.



정찬수 — 연출

과거로 돌아가 김구의 성장기를 들여다보고, 그의 선택과정 속에서 무수히 영향을 미치는 민중을 다루어보길 바랐다. 독립투사, 민족의 지도자, 시대의 희생양으로까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벌어진 김구의 양면적인 이미지 앞에서 이 작품은 작은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EW
FINDER
3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국악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접하게 했을 때 더욱 반향이 크기 때문이다. 열린 마당에서 한마음으로 듣고, 부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음악, 국악이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영화배우이자 소리꾼 '오정해'의 흥겹고 구수한 인도 아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초롱초롱한 눈빛과 들썩이는 어깨로 국악 한마당을 즐겼다. 지난 6월 7일 부평문화사랑방의 기획공연 국악 시리즈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두 번째 공연이 열렸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음악으로 사랑받으며,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그룹 '동화'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국악그룹 동화의 순수하고 맑은 감성을 담은 대표 창작 국악 곡들을 감상해보고 아리랑 노래를 배워보고 새롭게 가사도 지어 불러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 공연에 들어가기 전 국악인 오정해를 만나 부평문화사랑방의 국악 공연 그리고 우리 음악에 대한 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주곡

① 신바람 ————— ② 비 갠 뒤 ————— ③ 숨바꼭질 —————

국악그룹 '동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모토로 2011년 결성한 창작국악그룹으로 대금, 해금, 거문고, 피리, 퍼커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팀의 이름처럼 맑고 순수하며 때로는 슬픈 감성들을 선율로 담아내고 있으며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균형적인 조화를 꿈꾸고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국악을 접하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국악인 오정혜

Q 오늘이 두 번째 공연인데 첫 번째 공연은 어땠는지 좀 들려주세요.

공연을 보는 아이들 수준이 높더라고요. 원래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바로 등 돌리거든요. 이해나 배려는 없죠. 아이들은 무대가 좋으면 바로바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손님이 지요. 키즈국악콘서트라니 보통 전문 태교방송 등에서 국악 공개방송 정도를 하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멋진 제목을 붙여주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첫 공연은 그 이름에 제대로 부합하는 무대였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관객의 수준이 많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Q 부평문화사랑방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아무리 많이 밥상을 차려도 공연장의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달려들어 오시는 그 느낌이 많이 느껴졌고 또 무대를 준비해주시는 무대팀도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진행했던 공연에 대해 미리 들었는데 그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근래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Q 국악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악이 중요하다는 말보다, 국악은 이 땅에서 나온 국산이잖아요. 외래에서 들어온 외국의 역사를 담은 게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정서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니 이걸 접해서 나빠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로 한 올이라도 뜯어보고, 악기소리를 들어본 아이들은 뼈들어질 수가 없어요. 단 한 줄이라도 뜯었으면 이 명주실 뜯었을 때 손가락이 아팠던 경험 때문에 무엇든 홀대하는 법이 없을 것이고 그 한음을 뜯기 위한 노력을 배웠기에 좋은 정서 속에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살면서 만들어진 음악이니 굉장히 어렵고 깊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어야 해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쉽게 잊어요. 하지만 어렵게 배운 건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것은 징글징글하게 오래 남아요. 하다가 중간에 안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때 참 좋았는데’라고 느끼죠. 저는 음악 자체가 좋아요.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다 똑같은 언어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국악은 더 좋죠. 엄마가 아이에게 이



렇게 살아가, 하고 교훈을 하는 건 잔소리로 들지만 음악은 말 필요 없이 느껴지고 스며들어요. 백 마디 말보다 음악 한 번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면 엄마 아빠와 공감이 쉬워질 거예요.

Q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은 문화혜택이 차고 넘쳐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엔 구석구석 문화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을 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평에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상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열정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고, 와보니까 훌륭한 공간과 사람이 있었고 멋진 무대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덤으로 낀 거예요. 특별히 부평이어서 온 건 아니지만, 왔더니 부평의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Q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두르신 분들만이 누리시는 공연이에요. 현장으로 바로 오신 분들이 못 들어오시는 장면

도 봤으니 7월 10일 공연도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무대가 주는 힘이 객석과 가까울 때 더 좋은데 이 무대는 반 타원의 마당놀이이기에 아이들이 어우름도 함께 배우는 것 같아요. 밖에서 많은 것을 봐왔는데 부평이 참 잘 차렸다고 생각됩니다. 마음껏 연주하고 느끼는 대로 진행되는 틀에 얽매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이라는 이름에 정말 어울리는 곳이에요.

Q 앞으로 국악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으면 그런 자리는 다 갈 거예요. 제가 즐거우면 관객도 즐거우니까. ‘재밌다’라고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공연은 참 좋은 공연으로 기억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접한 우리 음악에 대한 경험과 또 그 경험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조선시대 음악을 2019년에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요. 오늘처럼 즐겁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같이 있는, 가치 있는 생활



부평구에는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동아리로 모여 저마다의 활동을 통해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평문화재단은 부평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평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자생적 동호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평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81개 단체, 1,06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와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들과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평생활문화동호회 중 가장 화려한 실버 인생을 즐기고 있는 포크댄스팀을 만나보았다.



김기순 강사님

포크댄스는 어렵지 않아요.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로 한다 해서 우리 말로 떼 춤이라고 불러요. 혼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누가 못하고 잘하고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포크댄스에 관심이 많아서 YMCA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유아교육 전공하며 유치원에도 포크댄스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포크댄스가 어른들 정서와 잘 맞더라고요.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격이 있고 예의도 있고 그런 우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노년을 조금 더 멋지게 사는 데 포크댄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노성옥 회장님

인천지역에 포크댄스 동호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생활문화센터 동호회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무료 강습이었고요. 이번 1월부터 동아리 구성이 돼서 시작했죠. 인원도 30명 정도 되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 포크댄스를 많이 홍보하고 발전 시켜 부평 구립 포크댄스팀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부평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포크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 부평생활문화센터에 들려주세요.** 보시면 아마 반하실 거예요.





권원택 회원

저는 포크댄스에 입문한 지 한 5년 되었어요. 노인이 되어서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감사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배우게 되었어요. 포크댄스는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운동도 되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좀 굼뜬게 늙고 우아하게 늙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겸비한 것이 포크댄스인 것 같아요.**

또 집에 있다던가 다른 활동은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을 수는 없지요. 저는 옷이 하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옷을 화려하게 입으니 나 자신이 더 신나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노성옥 회장님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지난주 결석하신 분들도 오늘 당장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일단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댄스라고 하면 몸치라고 사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포크댄스는 진짜 간단하고 쉽고 매너도 익히게 되어 정말 실버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기순 강사님

포크댄스는 처음이건 오래된 분이건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걸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치매예방, 인지능력이 많이 향상 됩니다. 댄스가 퇴폐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포크댄스는 쉬운 것부터 살짝 어려운 것까지 다양해서 난이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부평생활문화동호회 모집 안내



부평생활문화동호회 주요내용

- 동호회 지원사업 자격부여
- 부평생활문화축제 참여 기회제공
- 타 동호회와의 소통 및 다양한 생활문화 정보교류

자격 조건

- 부평구에서 활동 중인 3인 이상의 생활문화동호회
- 1회 이상의 활동경험이 있는 동호회
- 부평구민(주민등록지 기준) 1명 이상 포함

신청방법 (상시모집)

- ①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문화예술정보 → 생활문화동호회
- ② 첨부파일의 등록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③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이메일 : bpart168@naver.com
 - 방문 : 부평구 아트센터로168 부평생활문화센터 2층



ZOOM IN
2

창단 20주년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판타지아 부평, 부평의 역사, 삶, 미래를 노래하다





“20주년을 기념해 연주도 공연도 조금 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판타지아 부평’은 부평의 번영과 사랑을 책임감으로 담아 연주했습니다.”

”

윤재동 지휘자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한 정기연주회가 지난 5월 16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인천합창제 대상, 전국 LG휘센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광주전국합창경연대회 은상, 전국유관순합창대회 대상 등 다양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음악도시 부평의 또 다른 자랑 중 하나이다. 합창단에 참여하는 지휘자나 합창단원은 이제 아마추어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합창단으로서 자리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20주년 정기연주회를 위해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단원 모두는 ‘판타지아 부평, 아! 대한민국의 부평’을 테마로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추진하는 예술공동체로 최선을 다했다. 지휘자 윤재동과 31명의 합창단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감동의 합창은 행사 당일 참석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총 5부로 진행된 공연은 때로는 서정적으로 때로는 장엄한 분위기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아! 대한민국’ 무대는 그동안의 부드러운 연주곡과는 사뭇 다른 묵직하고 가슴 떨리는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국적은 일본이지만 마음은 한국입니다”



미야모토 요시코

2018년 여름부터 합류하게 되어 10월에 정식단원이 되었다. 이번 공연은 모든 곡이 창작곡이라 연습에 몰두했다. 지난 3·1절 기념 합창대회에 일본인으로서 참가했었다. 지휘자님께서 그날 공연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나는 거의 30년을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국적은 일본이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미리 물어봐 주신 지휘자님의 배려에 감사했다. 일본사람이 삼일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관객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휘자님께서 나를 무대 앞에 소개했고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아 정말 감사했다. 이번 공연도 열심히 준비해서 ‘아! 대한민국’을 힘차게 노래하고 싶다.

“100년을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합창단이 되길 바랍니다”

윤재동 — 지휘자



20주년

20주년을 사람으로 따지면, 성년으로 그 의미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그 성숙에 따른 책임도 따를 것이다. 전에는 아이처럼 각자 좋은 대로 활동했지만 이제 성숙함이 묻어나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성숙하게 활동하며 조직의 방향성을 모색해 더 영글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20주년을 기념해 연주와 공연을 조금 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이번 ‘판타지아 부평’은 부평의 번영과 사랑, 이런 것들을 책임감으로 담은 창작곡을 연주하는 터라 더 뜻 깊다.

창작곡

‘판타지아 부평’은 조금 더 성숙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작업했다. 부평문화원에서 시와 자료를 찾아 가사를 수집하고, 작곡가에게 요청해서 3개월 동안 3악장짜리로 3곡을 만들었다. 부평은 역동적이다. 땅은 좁는데 인구가 많아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을 담아냈다. 거기에 굴포천이나 옛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왔던 역사를 담아 서사적이면서도 환경적인 것이 특징이다. ‘아리랑 부평’은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원적산과 만월산에 대한 이야기, 성산평야에서의 농악적인 축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굴포에 대한 이야기와 굴포천의 낭만적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번영해나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모두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부평만의 특색

부평은 타지역에 비해 지역 긍지와 정체성이 강하다. 옛날부터 내려온 풍물축제 풍물 두레 농악, 합창 등이 지속하여 전해지고 있고, 현대 대중음악의 시작과 발전도 이뤄졌던 곳이라 부평은 다양한 음악 작품의 배경이나 콘텐츠가 되기에 충분하다.

합창단

‘세계적인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속가능한 합창단이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반짝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서 더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견고한 시스템과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망

합창단이 단단해지면서 조직적으로 체계가 잡히고 안정성이 제고되었다. 음악 단체는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데, 이 안정감을 기반으로 음악을 발전시킬 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걸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연대회에 도전해서 그랑프리룰 타는 게 소망이다.

“한마음으로 합창한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최현미

평소에도 음악을 좋아했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도전정신만으로 이 합창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합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도 함께 이끌어주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 우리 합창단의 자랑은 한마음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올해 2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30주년이 되어서도 이 자리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 꿈이다. 노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터를 만들어준 부평구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음악이 있는 부개도서관 300년 프랑스 문학과 음악 도서관에서 만나는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표방하는 부평구는 동네마다 자리하고 있는 실속있는 도서관에도 음악을 접목하고 있다. 특히 부개도서관은 예술분야 특화도서관이다. 도서관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려야 한다는 선입견을 떨치고 인문학에 예술과 음악을 접목해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부개도서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아름다운 곡조를 듣고 그와 더불어 수준 높은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부평구의 구립도서관들은 도서관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병행해 추진하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부개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여는 작은 음악회로 주민들과 호흡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부개도서관의 ‘음악이 있는 도서관, 프랑스 문학과 만나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도서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하나둘씩 도서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녁 7시에 시작하기에 서둘러 저녁을 차려 먹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많았다.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지는 고급스러운 음악과 흥미진진한 강연에 관객들은 저마다 얼굴에 여유 있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날 음악회는 프랑스 문학에 대한 강연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구성되었는데 프랑스 전체 상황을 그리는 문학을 설명하면 연이어 피아노나 성악 등이 이어지는 순서였다. 먼저 강사는 17세기 절대왕정을 완성한 루이 14세 시대에 꽃피운 발레와 음악, 연극과 오페라에 대해 강연했고 참석한 피아니스트는 ‘Jean Baptiste Lully - Gavotte en Rondeau for piano’를 연주했다. 또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18세기는 개인과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등 통치자의 압제를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고 새 세상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 후, 소설 『적과 흑』과 『연애론』을 살펴보고, 뮤지컬

강의를 맡은 박명희 프랑스문학박사는 역사에 따른 프랑스 문학과 그에 맞는 음악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예술분야 특화 도서관, 부개도서관
예술분야 특화 도서관으로 2012년 9월 개관 후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 영유아실, 누리터, 종합자료실, 문화아지트, 디지털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정문 앞 작은 놀이터와 공원은 방문객의 쉼터 역할을 한다.

- 운영시간 월 휴관 / 화~금 1층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층 종합자료실 (09:00~22:00) / 토~일 (09:00~18:00)
- 문의 032-505-0062
- 홈페이지 www.bpl.or.kr

<레미제라블> 속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 성악으로 연주되었다. 이후 프랑스 문학은 19세기 문학에서 개인의 감정과 삶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은 그 개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그리고 사실주의에서 상징주의로 변하는 과정을 쇼팽의 녹턴 작품번호 9번의 2번을 연주했고 조르주 상드의 문학세계를 그녀의 연인을 이야기와 연결했다. 이와 더불어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을 오페라로 완성한 비제의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와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를 들어보았다. 이후 20세기에는 풍요함과 혼돈의 시대로 프랑스의 정신세계를 격류 속에 휘몰아 넣은 ‘드레퓔스 사건’의 막을 열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문화에 심각하고 처절한 변화를 가져와 에밀 졸라의 사실주의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음악으로는 인상파 음악의 기틀을 마련한 드뷔시의 인상파 음악인 ‘달빛’과 ‘두 개의 아라베스크’, 스테판 말라르메의 상징주의 시를 살펴보았다.



‘책 읽는 부평’ 올해 대표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 선정

부평구문화재단 ‘책 읽는 부평’의 올해 대표 도서로 『푸른 사자 와니니』(이현 지음, 2015, 창비)가 선정됐다. 특히 『푸른 사자 와니니』는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 연령 고르게 득표하였고, 투표 종료를 앞두고 열린 사전 토론회에서는 『씨앗을 부탁해』(김은식 지음, 2016, 나무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주민투표’와 ‘사전 토론회’를 합산한 결과 『푸른 사자 와니니』가 올해의 대표 도서로 최종 선정되었다. 『푸른 사자 와니니』는 무리에서 쫓겨난 사자 와니니가 초원을 떠돌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사자 와니니가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상대 동물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주민투표를 주관한 부평 구립 부개도서관의 김현 사서는 “이 책이 내포하는 메시지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책 읽는 부평’은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부평 구립도서관과 책읽는부평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범 구민 독서운동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성낙경 2대 후원회장 취임

부평구문화재단은 2월 27일(수),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와 ‘2019년 정기총회 및 후원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성낙경 (주)한발기술 대표이사를 차기 후원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로 풍요로운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 1월에 발족하여 후원회 기금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부평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부평구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로 후원회장에 선출된 성낙경 (주)한발기술 대표이사는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의 수석부회장을 거쳐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의 제2대 후원회장으로 선출됐다. 성낙경 신임 후원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지난 4년 동안 후원회를 잘 이끌어오신 최도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가 제2의 활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2019년 지원사업으로 부평구문화재단 레퍼토리 제작 공연 <헛스윙 밴드(가제)>와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구(九) & 아몬드>,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부개도서관 <MusiCity 부평, 음악이 있는 도서관> 총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좌) 부평구문화재단 제1대 후원회장 최도현
우) 부평구문화재단 신임 후원회장 성낙경



부평구문화재단·부평지하상가발전협의회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 2월 15일(금)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지하상가발전협의회(회장 양희능)와 부평지하상가 외국인홍보관에서 부평의 대중음악생태계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음악중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상 속의 음악생태계 및 음악 활동 공간 조성, 지역의 대중음악인 육성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에 대한 것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부평뮤직데이’와 ‘부평뮤직워크’ 등의 행사를 부평지하상가 중앙홀과 서점 등의 공간에서 개최하여 지역 음악인이 공연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바 있다.

부평구문화재단 이영훈 대표이사는 “유동인구가 많고 부평의 상징적인 공간인 부평지하상가가 음악융합도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금상 수상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6월 8일(토)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소년소녀합창단경연대회’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3회 전국 소년소녀합창단경연대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의 문화 정서 함양과 합창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자 국립합창단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행사로 예선 심사를 거쳐 총 12팀이 결선에서 경합을 펼쳤다. 이날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의 별’이란 뜻의 ‘Lamia Stella’와 평화를 염원하고 희망을 담은 노래 ‘평화의 춤’을 선보였으며 힘 있는 목소리와 전달력, 흡입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국립합창단 이사장으로부터 상패와 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에 창단하여 2011년 제10회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2년 일본 오키나와 초청공연, 2014년 FEST ART VIENNA 국제합창대회 그랑프리 수상, 2015년 대교 TV 코러스 코리아 합창대회 대상, 2016년 제1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장려상 등 많은 상을 받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합창단은 8월 인천 문학산 정상 음악회와 10월 대교TV코러스코리아 합창대회 결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2일에는 부평아트센터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리



보다

2019년 가을, 부평문화재단은 음악 도시로서의 부평을 가득 채우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완성도 높은 창작 연극무대와 작품으로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웃을 돕는 옥션까지 뜻깊은 프로그램이 더해집니다.

이제 부평은 도시 곳곳이 미술관이며 콘서트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가족은 공연이 펼쳐지는 거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 민화를 보며 품격을 높입니다. 청년들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디지털 음악, 문화예술 기획을 전합니다.

부평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여유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건 올가을도 무리가 아닙니다.

WHAT'S NEXT

-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 뮤직게터링
- 아몬드
- 화이트세일
- State Of The Art
- 인순이 콘서트
- 민화, 번치 않는 소망을 입다

CALENDAR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나는 화려한 라인업!

스트릿건즈×크라잉넛, 오추프로젝트×홍대광, 강현구×몽니

숨조차 쉬기 어려운 복잡복잡한 출근길을 뚫고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된다.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퇴근시간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또다시 사람들과 엉겨 붙은 퇴근길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토닥토닥하는 시간을 선물할 방법이 있을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리라~!” ‘크라잉넛, 홍대광, 몽니’ 등 정상급 가수들과 인천을 대표하는 밴드 ‘스트릿건즈, 오추프로젝트, 강현구’의 뜨거운 음악으로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보자.

8.28(수)

· 스트릿건즈 :

집이 최고야,
꽃이 저서야 봄인 줄 알았네 외

· 크라잉넛 :

룩셈부르크,
내 인생 마지막 토요일,
말달리자 외

9.25(수)

· 오추프로젝트 :

에펠탑효과, 눈 딱 감고,
내가 더 좋아해 외

· 홍대광 :

잘됐으면 좋겠다,
비처럼 fall in love,
너로 완벽한 순간 외

10.30(수)

· 강현구 :

누그러지다, 별먼지,
열우물길 외

· 몽니 :

살아난다, 소나기,
소년이 어른이 되어 외

일시

- 8.28(수) 19:30
〈스트릿건즈 × 크라잉넛〉
- 9.25(수) 19:30
〈오추프로젝트 × 홍대광〉
- 10.30(수) 19:30
〈강현구 × 몽니〉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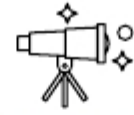
스트릿건즈, 크라잉넛,
오추프로젝트, 홍대광, 강현구, 몽니

문의

032-500-2000

※ 예매자 전원에게 1인 1개의 음료를 드립니다.

※ 프로그램은 공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뮤직게더링



일시 및 장소

- 10.11(금) 18:00~22:00
부평 지하상가 및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
- 10.12(토) 15:00~20:30
부평아트센터 구름광장,
달누리극장, 디지털뮤직랩(D-Lab) 등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42

10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다시 부평으로 모인다!

지난해에 이어 부평음악도시축제 <2019 뮤직게더링>이 부평의 여러 음악 거점에서 펼쳐진다. 부평과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물론, 국내외 대중음악계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게 될 이번 축제는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11일 금요일에는 부평역 일대를 중심으로 라이브 공연과 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티스트들과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0월 12일 토요일에는 대중음악의 현 트렌드를 대표하는 국내·외 밴드(스테이지 1·2)들과 전자 음악 기반의 음악가(스테이지 3)가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음반 제작 레이블과 연계된 '레이블 마켓'과 다양한 먹물거리가 제공되는 '푸드 트럭 존'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 10.24(목) 10:30
· 10.25(금) 10:30, 19:30
· 10.26(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11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강민지, 강병구, 박근영, 서정식, 서현민,
송김경화, 전인호 외

문의

032-500-2000

무대로 만나는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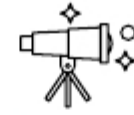
아몬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성장을 통해 던지는 소통과 공감에 대한 질문

입체낭독극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자 베스트셀러 소설로 사랑받고 있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를 무대화한 작품이다. 2019 <아몬드>는 작년 소극장 초연 이후 더욱 탄탄해진 무대언어와 함께 대극장 편으로 돌아온다. 공감 불능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소통과 공감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illust 0.1(0chooi.tumblr.com)
design 윤정우



6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일시

· 프리뷰 11.7(목)~11.13(수) 10:00~18:00
· 경매 일시 11.14(목) 19:00
· 경매 후 전시 11.15(금)~11.21(목) 10:00~18:00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00

※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로 모두 함께 나누는 진정한 시간, 미술품 자선경매 여섯 번째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예술을 통한 나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 실현을 위해 기획된 미술품 자선 경매 행사인 6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진행한다. 작품 소장자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번 자선경매 행사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시각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경매 행사 전에 이루어지는 프리뷰 전시를 통해 응찰자와 관람객들은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경매 당일에는 누구나 참여하여 생생한 경매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HAT'S NEXT — 5



일시 _____
11.13(수) 20:00

장소 _____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_____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관람연령 _____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_____
카이, 한지상, 리사,
JK재즈밴드, 뮤지컬앙상블 앙코르

문의 _____
032-500-2000

뮤지컬 갈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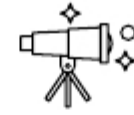
State Of The Art

K-뮤지컬을 선도하는 뮤지컬스타 '카이, 한지상, 리사'가 수놓는 11월의 겨울밤!

뮤지컬에서 선보였던 주옥같은 넘버로 원작의 감동 그대로를 전한다.

풍부한 성량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손꼽히는 최정상 뮤지컬스타 카이와 한지상, 리사가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팬텀>, <벤허> 등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 온 뮤지컬 작품의 넘버들로 관객들에게 작품이 주는 감동 그대로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뮤지컬앙상블 앙코르'의 무대와 10인조 라이브밴드 'JK 재즈밴드'의 연주로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겨울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WHAT'S NEXT — 6



일시 _____
11.29(금) 20:00

장소 _____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_____
VIP석 110,000원 / R석 9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관람연령 _____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_____
032-500-2000

이 시대 최고의 프리마돈나

송년음악회 with 인순이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 흔들림 없는 라이브!

드레스에서 핫팬츠, 트로트에서 힙합까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가수 인순이가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온다. 1978년 여성그룹 '희자매'의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여 1983년 '밤이면 밤마다'의 빅히트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가수 인순이는 데뷔 40년을 넘긴 지금도 최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으로 음악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래 안에 자신의 가슴 속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대중을 휘어잡는 폭발적인 힘으로 이번 공연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State
Of
The
Art





민화, 변치 않는 소망을 입다



일시 12.11(수)~12.21(토) 10:00~18:00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00

※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와 자손의 번창, 기원과 위안의 염원

'소망의 기원'이라는 민화가 가진 주제를 투영한 작품들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이다. 민화를 시대를 품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 소박하지만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전통 그림이다. 시간을 거듭하여 현재는 한국적인 고전미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함께 독창적인 현대 민화로 재탄생되었다. <민화, 변치 않는 소망을 입다> 전시를 통해 예스러운 아름다움의 전통 민화와 다양한 유희와 재치들을 엿볼 수 있는 현대 민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와 자손의 번창, 기원과 위안이 담겨 있는 민화 작품들이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염원과 소망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 기대한다.



08

2019 এস্কসیتی프로젝트 기획전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일시 8.19(월)~9.20(금)
장소 부평3동 실내 유희공간 및 골목
(부평구 경원대로 1262번길 5, 1층)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44

부평 신촌(부평3동)의 유희공간과 골목에서 진행되는 아카이브 전시는 '에스컴(ASCOM)'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담는다. 설치미술 작가, 건축가, 사운드디자이너의 다양한 해석과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부평 신촌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생활문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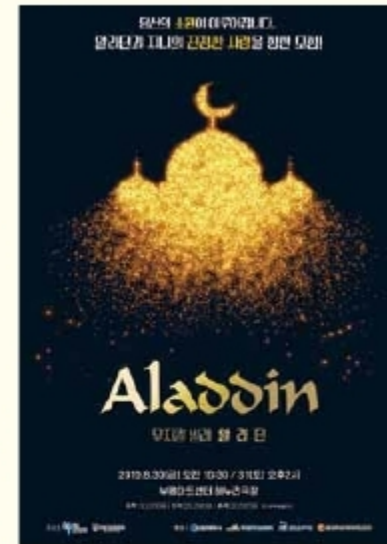


일시 8.28(수) 19:30 <스트릿건즈×크라잉넛>
9.25(수) 19:30 <오추프로젝트×홍대광>
10.30(수) 19:30 <강현구×몽니>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문의 032-500-2000

숨조차 쉬기 어려운 복잡복잡한 출근길을 뚫고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된다.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퇴근시간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또다시 사람들과 엉겨 붙은 퇴근길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토닥토닥하는 시간을 선물할 방법이 있을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리라~" '크라잉넛, 홍대광, 몽니' 등 정상급 가수들과 인천을 대표하는 밴드 '스트릿건즈, 오추프로젝트, 강현구'의 뜨거운 음악으로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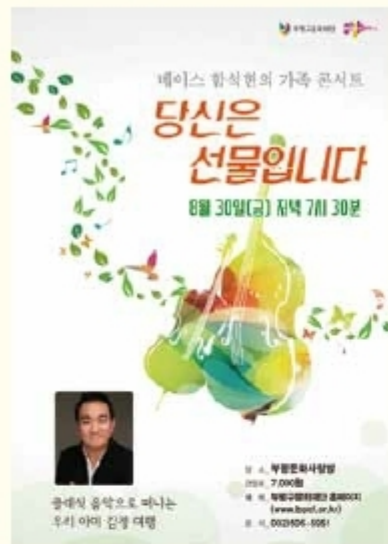
뮤지컬 발레 알라딘



일시 8.30(금) 10:30, 8.31(토)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 A석 20,000원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진 인천시티발레단
문의 032-815-1227

알라딘, 자스민 공주 그리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발레로 찾아온다.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며 담담하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알라딘의 이야기를 통해 신념과 용기, 진실된 사랑을 만나보자. 유머러스한 캐릭터와 화려한 무대장치, 다양한 볼거리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발레와 뮤지컬이 결합된 신비로운 알라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베이스 합석현의 가족콘서트 당신은 선물입니다



일시	8.30(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베이스 합석현 / 소프라노 김은영 / 테너 김태영 / 오보에 손미래 / 카운터테너 조요한
문의	032-505-5951

30년 동안 음악의 길을 걸어온 베이스 '합석현'의 삶을 유쾌한 말솜씨로 풀어내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곡들을 그의 목직 한 목소리로 전하는 가족콘서트 <당신은 선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국내·외에서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현재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소프라노, 테너, 카운터테너의 아름다운 연주와 오보에 선율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감동 넘치는 시간을 선사한다.

2019 부평구문화재단 청소년 음악학교 스쿨 오브 뮤직



일시	8.31(토)~12.21(토) 매주 토요일 10:00~12: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밴드부스, 대연습실 등
대상	부평구 및 인천에 거주하는 중학생 누구나 / 20명
참가비	200,000원 (총16회)
신청·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전 접수 (선착순)
문의	032-500-2062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자아를 찾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배우며,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쿨 오브 뮤직>은 총 16회 과정으로 분야별 전문 강사와 함께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작사, 작곡, 녹음 등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습득하며 마지막 수업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창작곡으로 콘서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뮤직랩(D-Lab) 디지털 음악 교육 기초·심화 프로그램



장소	디지털뮤직랩(D-Lab)
참가비	무료
신청·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전 접수
문의	032-500-2042, 2045

새로운 디지털 음악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뮤지션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음악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일반인, 그리고 음악 애호가 등에게 다양한 음악적 활동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PROGRAM
기초과정
LP샐롱
· 일시 : 9.1(일), 10.6(일), 11.2(일) 15:00~17:00 (각1회)
· 대상 : 레코드(Vinyl)에 관심 있는 성인(회당 20명)
· 내용 : 음악을 통한 세대간의 교류 및 음악적 가치 제고

DJ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일시 : 9.21(토), 9.28(토), 10.5(토), 11.2(토), 11.9(토), 11.16(토) 16:00~18:00 (각 1회)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회당 15명)
· 내용 : 과거와 현재의 DJ를 체험하고, 음악 수집방법(디깅)에 대해 알아보는 일일 워크숍

심화과정
DJ스쿨
· 일시 : 9.16(월)~10.28(월) 매주 월·수요일 14:00~16:00(총 12회)
· 대상 : 디지털음악 및 디제잉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청년(20명)
· 내용 : 전자 음악에 관련한 기초 지식부터 내가 만드는 믹스셋을 통한 결과물 도출

발도르프 교육을 활용한 느린 연극 교실



일시	9.4(수)~10.23(수) 매주 수요일 16:30~18: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 주민센터 3층)
대상	초등 3~5학년 / 15명
참가비	130,000원 (총 8회)
신청·접수	8.20(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문의	032-505-5950

사고, 감정, 의지 세 가지의 균형 잡힌 발달을 목표로 하는 발도르프 교육과 예술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나만의 고유성을 들여다보는 신체 관찰, 즉흥 연극, 습식수채화 활동 등의 놀이를 통해 마음 깊이 느끼고, 행동하고, 지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종이컵 1인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일시	9.6(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연가·연출	박영희
문의	032-505-5951

박연철 작가의 원작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는 '2007년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작품으로 망태 할아버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화시키는 어른들의 모습과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 같은 도장 찍힌 착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른들의 부조리함을 고발한다.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반전은 어른들에게는 가슴 철렁함을, 아이들에게는 통쾌함을 선사할 것이다.

부평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 앤드씨어터 터 무늬 있는 연극× 인천_부평편

일시	9.7(토)~9.8(일)
장소	부평구 일대(출발지점 사전 공지)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앤드씨어터
구성·연출	전윤환, 조민정
문의	010-6391-7773

손에도 지문이 있듯이 땅에도 고유한 무늬가 있다. 이것을 터의 무늬, 터 무늬라고 부른다. <터 무늬 있는 연극>은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걸으며 공간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동형 공연이다. 관객은 '걸기'라는 방식을 통해 도시를 재맥락화 하거나 예술가가 공간에 숨겨 놓은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이번 공연은 이야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부평 일대로 한정하여, 이 지역을 관객과 새롭게 감각해 보고자 한다.

2019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에담 : 청년, 공연장을 움직이다

일시	9.17(금)~10.26(토)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및 해누리극장
대상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청년 20명
참가비	50,000원 (총 10회)
신청·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전 접수 (선착순)
문의	032-500-2062

문화예술계 종사를 희망하는 예비기획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현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실무까지 경험해보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인 '앤드씨어터'와 함께 진행하며, 올해 2년째 진행되는 무대로 만나는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의 공연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미켈란젤로 vs 다빈치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일시	9.18(수)~9.19(목) 10: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출연진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 / 클래식 큐레이터 조숙현
문의	032-500-2000

문화의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에서 인간중심의 문화를 꽃피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한 두 명의 예술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들의 작품을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만나본다. 아름다운 미술작품과 함께 클래식을 감상하며 르네상스 시대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PROGRAM
· 비발디 - 사계 중 '여름', '겨울'
· 아브르 - 옥수수 가루 위의 참새
· 바흐 - G 선상의 아리아
· 헨델 - 파사칼리아
· 조스캥 데 프레 - 주여, 당신에게 희망을 걸겠습니다.
· 프로그램은 공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전 공연으로 단체와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단체 관람은 20인 이상입니다.

바로크 음악으로 듣는 돈키호테 영웅하면 어때



일시	9.20(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더 뉴 바로크 컴퍼니 / 마임 및 연기 이정훈 / 미술 및 연기 송다민
문의	032-505-5951

<영웅하면 어때>는 바로크 시대 작곡가 텔레만의 '돈키호테'를 '더 뉴 바로크 컴퍼니'가 마임과 미술 연기로 풀어낸 마음 치유 음악회이다.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는 획일성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광인이라고 불릴지라도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잃지 않았던 돈키호테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음악동네 만들기 2019 부평뮤직데이



일시-장소	9.20(금) 19:00~20:30 부평지하상가 중앙홀
	10.18(금) 19:00~20:30 부평지하상가 중앙홀
	10.19(토) 14:00~17:00 굴포먹거리타운
관람료	전석 무료
문의	032-500-2043

2019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2019 부평뮤직데이>는 일상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음악 공연 프로그램이다. 부평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동아리, 동호회의 라이브 공연과 야외공연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음악을 선사하며,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3기

일시	9.21(토)~11.9(토) 매주 토요일 9:30~12: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2학년 / 18명(취약계층 우선 선발)
참가비	무료
신청-접수	8.27(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문의	032-505-5950

'도깨비'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전통 설화를 악기연주, 음악감상, 전래놀이, 전통문화, 감정 표현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음악으로 표현하는 통합 문화예술 교육이다.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에 리듬을 엮어 음원을 만드는 레코딩 작업을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원을 결과물로 받아볼 수 있다.

2019 부평생활문화동호회 발표 및 교류 지원사업

너하고 나하고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너나들이>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다목적홀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수강료	무료
문의	032-500-2065

<너나들이>는 2019 부평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동호인들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각기 다른 동호회가 함께 협력하여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발표회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분이 일상의 생활문화로 행복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PROGRAM	
· 9.21(토) 11:00 - 풍류한마당 바울이랑풍류랑 (바울예술단, 풍류랑)	
· 10.19(토) 11:00 - 우쿨렐레 행복콘서트 부평우쿨렐레연합팀 (우케랑, 조이우쿨렐레 앙상블, 라니카이우쿨렐레앙상블)	
· 11.16(토) -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음악회 어울림통기타, 알렙하모니카, 한마음문화예술단	

함께 준비하고, 모두가 즐기는 축제

2019 부평생활문화축제 x 부평풍물대축제



일시	9.24(화)~9.29(일)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대로 일대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문의	032-500-2065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는 공연과 전시부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생활문화 축제가 진행될 것이다. <2019 부평생활문화축제>를 통해 1(일)상을 6(유)쾌하고 8(팔)팔하게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일시	9.27(금) 19:30, 10.25(금) 19:30, 11.19(화) 19:30, 12.6(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진행 홍승찬 / 인천시티발레단 / 피아노 김준희, 이송윤 / 바이올린 한수진 / 피.오.에이(P.O.A)
문의	032-505-5951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은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이다. 발레 음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클래식과 발레', 기억에 남을 명장면 속 테마음악을 연주하고 그에 얽힌 스토리를 전달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클래식과 함께 한 위대한 명작 스토리 '클래식과 미술', 음악의 도시를 찾아 떠나는 '클래식과 도시' 총 4회로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와 악기로 재미있고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부평영크리에이티브 2기 당선자 전시

일시	9.27(금)~10.24(목) 10:00~18:00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032-500-2062

2017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2회를 맞이한 '부평영크리에이티브'는 국내에 역량 있는 신진 기획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독창적인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공모에 선정된 신진 기획자의 새로운 시각이 담긴 전시를 통해 차후 그들이 국내의 현대 미술사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019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이금희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



「아침마당」의 푸근함을 담은 문학과 클래식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는 아침마당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아나운서 이금희와 함께한다. 세계 명작문학부터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는 한국 근·현대 소설 그리고 한 해의 고단했던 삶을 어루만져줄 시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문학과 음악에 이금희의 가을별 같은 따스한 진행이 더해져 가을 낮 관객들의 삶에 심과 위안을 선사한다.

일시	9.26(목) 11:00 / 10.31(목) 11:00 / 11.28(목)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출연진	이금희(사회), 이신규(음악감독), 클래식앙상블(연주자)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 공연 전(후)에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곡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GRAM

<여자[女子] : 1.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 문학작품 : 「제인애어」(샬롯 브론테), 「여자의 일생」(기 드 모파상)
- 파니 멘델스존 - 현악 4중주 내림 마장조, 4악장
- 드뷔시 - 아마빛 머리의 소녀
- 마리아 테레지아 폰 파라디스 - '시실리안느' 내림 마장조 외

<지영아, 엄마를 부탁해>

- 문학작품 :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82년생 김지영」(조남주)
- 그림 - 엄마의 슬픔
- 모차르트 -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전주곡, 작품265
- 드보르작 -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외

<당신, 충분히 잘 살았다>

- 문학작품 : 내 삶을 어루만져 줄 시(時) 다수
- 펠릭스 멘델스존 - 「무언가」, 작품19, 제1권
- 브람스 - 「두개의 노래」 중 제1곡, 「가슴깊이 간직한 동경」
- 슈베르트 - 「겨울나그네」 중 제5곡 「보리수」 외 3곡

2019 지역 예술가-예술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지역에서 예술하기



일시	10월 중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상	지역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및 예술가, 예술단체 구성원
문의	032-500-2066

인천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기획, 홍보, 마케팅, 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 동네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예술 활동의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폭넓은 작품 활동과 지역 예술 활성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unny Band 즐거운 클래식



일시	10.3(목) 14:00, 17: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트럼펫 박태홍, 김정현 / 호른 이정민 / 트럼본 이종성 / 튜바 안정민 / 드럼 임재현
문의	032-505-5951

클래식 전공자들이 의자를 버리고 유쾌하게 춤추듯 연주를 선보이며 클래식에서 재즈, 영화, 음악, 가요 등 다양한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 공연을 관람하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즐거움 클래식>을 통해 전통 클래식 음악을 넘어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 연극 행복한 왕자



일시	10.11(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제비 허정진 / 성냥팔이 소녀 박은미 / 작가 나준연 / 성냥팔이 조민수
문의	032-505-5951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이다. 왕자의 동정심과 제비의 희생을 통해 아이들이 이타심에 대해 배우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마스크 플레이와 인형, 아름다운 영상과 그림자극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동화책이 펼쳐진 듯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2019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일시·장소	10.11(금) 18:00~22:00 부평 지하상가 및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 10.12(토) 15:00~20:30 부평아트센터 구름광장, 달누리극장, D-Lab 2층 등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42

지난해에 이어 2019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이 부평의 여러 음악 거점에서 펼쳐진다. 부평과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물론, 국내외 대중음악계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게 될 이번 축제는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가족연극 거리 위의 빨간모자



일시	10.15(화)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할아버지 박재춘 / 손녀 김수진
문의	032-505-5951

경쾌한 음악에 맞춰 거리 위의 인형극 무대를 세우고 관객을 불러 모으는 할아버지, 빨간모자 공연을 위해 혼자서 공연 준비에 바쁜 손녀딸 앤. 극 중 인형극인 '빨간모자와 늑대'를 공연하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그렸다. 할아버지가 엄마와 늑대, 사냥꾼 3가지 역할을 소화하고, 손녀가 빨간모자와 할머니로 변신하는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한다.

우리 아이 자존감 UP 프로젝트 목 짧은 기린 지피



일시	10.15(화)~10.16(수) 10: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제작	사단법인 하늘에
원작	고정욱
문의	032-500-2000

<목 짧은 기린 지피>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지피'와 표범 무늬 얼룩말 '통가'가 아프리카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냥꾼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성장스토리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 오전 공연으로 단체와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단체 관람은 20인 이상입니다.

동화 뮤지컬 발레 빨간모자



일시	10.18(금) 10:30, 10.19(토)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 A석 20,000원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진	인천시티발레단
문의	032-815-1227

아동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요즘 '빨간모자'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아동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프랑스의 동화작가 '샤를 페로'의 원작을 각색해 늑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권선징악의 교훈과 의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연이다. 동화를 읽어주는 듯한 내레이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수상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한다.

무대로 만나는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



일시	10.24(목) 10:30, 10.25(금) 10:30, 19:30, 10.26(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11세 이상
출연진	강민지, 강병구, 박근영, 서정식, 서현민, 송김경화, 전인호 외
문의	032-500-2000

입체낭독극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자 베스트셀러 소설로 사랑받고 있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를 무대화한 작품이다. 2019 <아몬드>는 작년 소극장 초연 이후 더욱 탄탄해진 무대언어와 함께 대극장 편으로 돌아온다. 공감 불능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소통과 공감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하반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



일시	11.2(토)~11.30(토) 매주 토요일 10:00~13: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및 스튜디오 A-B
대상	초등 4~6학년 및 보호자 (2인 1팀, 총 15팀)
참가비	팀당 100,000원
문의	032-500-2062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라는 인문학적 토대와 즉흥 연극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공감을 해야 하는 순간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라는 말이 있다. 갈등을 손님으로 맞이하여 연극과 비폭력 대화를 통해 나를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끽해보자.

제10회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시	11.2(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032-500-2000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하는 부평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세계를 여행하며 각 나라에서 사랑받는 합창곡과 그 나라의 문화를 만나보는 즐거운 시간을 뮤지컬로 선보인다. 한국의 대표곡 '아리랑', 과연 세계 각국에는 어떤 곡이 있을지 함께 연주 여행을 떠나보자.

전통음악과 미술의 콜라보 음악극 호랑이와 꽃감



일시	11.5(화)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피리 김기재 / 대금 최우창 / 가야금 이성희 / 해금 이한나 / 타악 김보경 / 신디 전인형, 최성목 / 호랑이 추현종 / 토끼 김지은 / 원숭이 이동빈 / 소도둑 김문환
문의	032-505-5951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리석은 호랑이가 꽃감을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인 줄 착각하고 도망가는 '호랑이와 꽃감'의 이야기를 국악의 요소와 마술을 접목하여 만든 음악극이다. '호랑이와 꽃감'이라는 전래동화가 담고 있는 교훈을 국악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6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일시	프리뷰 11.7(목)~11.13(수) 10:00~18:00 경매 일시 11.14(목) 19:00 경매 후 전시 11.15(금)~11.21(목) 10:00~18:00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53/2057

‘예술을 통한 나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 실현을 위해 기획된 미술품 자선 경매 행사인 6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진행한다. 작품 소장과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번 자선경매 행사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시각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경매 행사 전에 이루어지는 프리뷰 전시를 통해 응찰자와 관람객들은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경매 당일에는 누구나 참여하여 생생한 경매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 State Of The Art



일시	11.13(수)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카이, 한지상, 리사, JK재즈밴드, 뮤지컬양상블 앙코르
문의	032-500-2000

풍부한 성량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손꼽히는 최정상 뮤지컬 스타 카이와 한지상, 리사가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온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팬텀>,

<벤허> 등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은 받아온 뮤지컬 작품의 넘버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더불어 '뮤지컬양상블 앙코르'의 무대와 10인조 라이브밴드 'JK재즈밴드'의 연주로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겨울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제4회 부평구립품물단 정기연주회 신명울림

일시	11.16(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부평구립품물단
문의	032-500-2000

올해로 창단 12주년을 맞은 부평구립품물단은 부평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단체이자 부평의 문화사절단으로서 품물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제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한국 전통의 모듬북과 설장구를 화려한 포퍼먼스로 재구성하고, 사물놀이와 진도씻김굿으로 감동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팽과리의 아름다운 진쇠춤이 꽃을 피우고, 붓상놀이와 농악놀이로 관객과 하나가 되어 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연극 프랑스 여행 스케치

일시	11.22(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진행 박명희 / 소프라노 송지영 / 바리톤 김진우 / 피아노 김애송 / 기타 이기영 / 바이올린 유현우 / 첼로 양아영
문의	032-505-5951

프랑스는 파리와 베르사유 궁전, 수많은 성과 정원들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

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 웅장한 궁중문화와 섬세하고 화려한 귀족 문화를 누렸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 세계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 문화박사의 해설을 통해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에 접근해 본다.

판타지 발레 전막 호두까기 인형



일시	11.22(금) 10:30, 11.23(토)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 A석 20,000원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진	인천시티발레단
문의	032-815-1227

매년 겨울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선사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 환상적인 무대와 의상, 그리고 '꽃의 왈츠', '눈의 왈츠' 등 밝고 경쾌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함께하는 작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공연을 선물하자.

아름다운 클래식 클라츠 트리오



일시	11.26(화)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바이올린 이다은 / 첼로 이호찬 / 피아노 최현호

'클라츠 트리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받은 세 멤버로 이루어져 있다. '클라츠 오케스트라'의 악장 이다은과 수석 이호찬, 신세대 피아니스트 최현호는 따뜻한 선율과 숨죽이게 하는 몰입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내비치며 차세대 트리오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통 클래식부터 재즈와 팝을 아우르는 폭넓고 독창적인 레퍼토리로 사랑방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울 예정이다.

이 시대 최고의 프리 마돈나 송년음악회 with 인순이



일시	11.29(금)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0,000원 /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32-500-2000

드레스에서 핫팬츠, 트로트에서 힙합까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가수 인순이가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온다. 1978년 여성그룹 '희자매'의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여 1983년 '밤이면 밤마다'의 빅히트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가수 인순이는 데뷔 40년을 넘긴 지금도 최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으로 음악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래 안에 자신의 가슴 속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대중을 휘어잡는 폭발적인 힘으로 이번 공연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 레퍼토리 제작공연 헛스윙 밴드



일시	12.11(수)~12.13(금) 19:30, 12.14(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32-500-2000

2014년~2018년 창작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 이어 새 시즌을 여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레퍼토리 제작 공연 <헛스윙 밴드>. 1970년대 재즈 음악의 중심 '부평'에서 클래식 피아니스트 '유덕'의 좌충우돌 스윙밴드 창단기와 엉망진창 헛스윙 밴드의 좌충우돌 역사 오디세이가 펼쳐지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대세 극작가 오세혁과 기지와 해학을 담은 연출가 이상욱, 음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광폭의 행보를 보이는 작곡가 이진욱까지 참여하는 창작자의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하게 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제작공연 <헛스윙 밴드>가 12월 그 막을 올린다.

부평구문화재단 송년기획전시 민화, 변치 않는 소망을 입다



일시	12.11(수)~12.21(토)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	--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문의	032-500-2053 / 2057

'소망의 기원'이라는 민화가 가진 주제를 투영한 작품들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이다. 민화를 시대를 품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 소박하지만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전통 그림이다. 시간을 거둬들이며 현재는 한국적인 고전미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함께 독창적인 현대 민화로 재탄생되었다. <민화, 변치 않는 소망을 입다> 전시를 통해 예스러운 아름다움의 전통 민화와 다양한 위트와 재치들을 엿볼 수 있는 현대 민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와 자손의 번창, 기원과 위안이 담겨 있는 민화 작품들이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염원과 소망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 기대한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사랑방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시	12.14(토) 17: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색소폰 남진우 / 피아노 박지혜 / 베이스 한다빈 / 드럼 김정훈
문의	032-505-5951

'Solar Band'는 가요, 팝, 동요, 3세계 음악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친숙한 곡들을 재즈 형식으로 옷을 입혀, 쉽고 재미있게 재즈연주를 하는 팀이다. 어린이부터 부모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캐럴과 동요를 연주하고, 설명을 함께 곁들여 관객들이 곡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입체낭독극 스크루지



일시	12.20(토)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출연진	배우 양승한, 이동건, 신소영, 정바라, 김민혜, 홍지인 / 연주 배현정
문의	032-505-5951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어떻게 그들을 어린 시절처럼 착한 사람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나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 좋은 생각을 찾아 함께 떠나보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금희와 함께 하는

브런치 콘서트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이야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전석 15,000원

이금희가 전하는
당신을 위로하는 책과 음악

09.26 여자【女子】: (圖) 1.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제인에어 샬롯 브론테 | 여자의 일생 기 드 모파상

10.31 지영아,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11.28 당신, 충분히 잘 살았다.
내 삶을 어루만져 줄 시【詩】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032-500-2000(http://bpcf.or.kr)
예매 | 부평구문화재단 인터파크 엔티켓
(후원회원, 온라인 회원, 패키지 구매 등 최대 50% 할인)

*브런치콘서트 예매자 전원에게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소개



튼튼한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② 신청문의 032-500-201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구분 및 예우

기업/개인	회비	혜우	평생회원
기업/개인	해누리 (5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달누리 (2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개인	구름 (3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7년
	외 (1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분기별 후원회 소식지 발송,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정기간행물 및 기획공연 프로그램책 후원자·기업명 표기, 가입기념 선물 증정		

후원해주시는 분들

달누리	외
최도현 (주)대원인물 대표이사	맹익재 (주)클라이젠 대표이사
성낙경 (주)한발기술 대표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이혜민 前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꽃누리	
노태순 씽크빅문고 대표	박옥진 前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서태호 (주)난다 고문	강경애 리디안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고문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박경윤 박경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최창석 은성산업 대표
정규형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정하주 유한광고 대표
이광복 (주)동서식품 대표이사	박영식 부평단위농협 감사
조덕형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강정석 (주)삼원목재 대표이사
별누리	
홍종국 삼환여객 대표	가람
구홍희 (주)부평역사 대표이사	신희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함국종 (주)부원산업 대표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최주송 (주)대경아이스 대표	안중영 정수미크론 대표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신종백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목사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조경애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기종현 (주)연우 대표이사	오중석 (주)한국통운 대표이사
심수일 (주)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	한유순 (주)우신컨텍 대표이사
김성국 거금 대표	정지연 (주)광원건설 회장
정세교 (주)삼호나노텍 대표이사	이계찬 (주)지인조경 대표이사
구름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유환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상무	황영희 가현텍스 세무사
배수진 (주)송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일영 前 부평구청 의회사무국장
전봉운 (주)부평환경 대표이사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허춘석 (주)동일환경 대표이사	고현영 안국노무법인 대표
안용현 (주)한국그린환경 대표이사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박창호 (주)인영자동차공업 대표이사
정혜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신미영 디자인넷 대표
권영조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대표이사	최병윤 (사)서도창배행이연구보존회 부이사장
최승민 (주)스윙 대표	류현숙 KB국민은행 산곡동지점장
KB국민은행 산곡동지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소개



아름다운 참여, 시민회원&문화나비가맹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과 문화나비가맹점은 정기 후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1. 시민회원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www.bpcf.or.kr)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재단소개 → 시민회원 → 시민회원 가입하기]

2. 문화나비 가맹점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3. 신청문의

032-500-201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시민회원	연 3만원 (연간납부)	예우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4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2매
문화나비 가맹점	연 26만원 (월 2만원 납부)	예우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초대권 연간 2매 제공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50% 할인 / 10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4매 - 문화나비 가맹점 현판 부착 - 가입기념 선물 증정
	연 36만원 (월 3만원 납부)	예우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초대권 연간 2매 제공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50% 할인 / 20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4매 - 문화나비 가맹점 현판 부착 - 가입기념 선물 증정

※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 신청 가능)

후원해주시는 분들

시민회원

강은숙 공현정 권진희 김경민 김대윤 김소희 김유정 김중수
김종필 김중호 김하나 노철환 류대희 맹효재 박건호 박귀정
박미연 박선화 박정혁 박지영 박진수 배철홍 서승연 송용일
신소영 신종순 신현주 안미열 안효정 엄정규 여건봉 우사라
이경아 이경현 이금강 이기훈 이미숙 이미영 이상현 이설아
이소영 이재홍 이종란 이주노 이혜진 임미영 임영희 장정현
정하윤 정하주 정혜림 정호철 조귀남 조병숙 조종혁 조현주
주정연 최은영 최은자 최인호 최현미 홍승미 홍지연 황소연
황현식

*비공개 20명

문화나비 가맹점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부일정육식당 해주막국수
바우네 나주곰탕 커피마마 순가락 반상 마실
월드인슈 밀레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주유소
코코 돈까스 인영자동차공업사 열우물 생고기
신한우왕국 정육식당 정밀 드림디포 부평점
명태어장 부개점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1급애니오토자동차
남도추어탕 토부리병천순대 갈산점 신화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